

자녀와 공부 문제로 부딪히는 일이 많나요?

2019 뉴스레터 6월호: 공부 갈등, 즐겁게 해결하기

● 민서 이야기 ●

1학년 민서는 오늘도 공부시키려는 엄마와 씨름합니다.

엄마는 받아쓰기가 서툰 민서의 모습에 걱정도 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납니다.

민서는 이런 엄마 마음도 모르고 하기 싫어 몸만 베베 꼬다가 결국 엄마에게 크게 혼나고 눈물을 터뜨리고 맙니다.

자녀의 공부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이 오히려 공부에 대한 자녀의 흥미와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나요? 이번에는 학습을 둘러싼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자녀의 학습을 현명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놀이도 학습입니다.

- ▶ 초등학교 때 학습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키우고, 집중력, 자신감, 자기조절능력을 길러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놀이와 신체활동이 **자녀의 뇌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2 기초학습능력이 중요합니다.

- ▶ 읽기, 쓰기, 사칙연산 등은 본격적인 학습을 위한 기초 학습능력에 해당합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과정**을 생략하고 성급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강요하면 자녀가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 ▶ 특히 **읽기 능력**의 경우 속도와 정확성이 중요하며 읽기 능력이 발달하지 못하면 전반적 학습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교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3 학습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 초등학습의 경우 지능이나 기억력보다 **주의집중력**이 중요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 ▶ 주의집중력이 부족한 경우 공부방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거실이나 식탁에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 ▶ **충분한 수면**이 아이의 학습을 도와줍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권장 수면시간은 **하루 10~11시간**입니다.

4 자녀도 학습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세요.

- ▶ 자녀의 학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이가 짜증을 내는 것은 자녀도 스스로 문제를 알고 해결하고 싶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노력에 대해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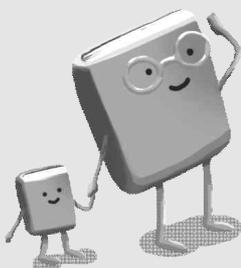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어서 얼마나 속상하니. 수학이 특히 어려운가 보구나.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엄마(아빠)랑 함께 고민해 볼까?”

5 성적만이 아이를 판단하는 가치의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 ▶ 공부 외에도 자녀가 가진 고유한 특기를 찾아내어 자주 칭찬해 주세요. 칭찬은 자녀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만듭니다. 칭찬은 구체적으로 해줄 때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 ▶ 자녀를 다른 아이(다른 자녀 또는 다른 같은 학년의 아이)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통해 성장을 이끌고 싶다면 내 아이의 현재 행동과 이전의 행동을 비교하여 더 성장한 점에 초점을 두어 칭찬하세요.

6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다음과 같은 경우 학습을 방해하는 정서·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전반적인 언어능력과 이해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지속적인 노력을 해도 읽기나 연산 등의 기초학습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 집중력이 지나치게 부족하고 산만한 경우
 - ✓ 매사 걱정이 많고 심하게 불안해하는 경우
 - ✓ 예전과 달리 우울해하고 의욕이 없는 경우
 - ✓ 부모에게 지나치게 반항적이거나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 ✓ 여러 가지 노력을 하였으나 지속해서 학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공부의 목표는 결국
아이가 풍성하게 꿈꾸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내적인 성장’에 있겠지요.

갈등이 생기더라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와 소통해 주세요.

2019년 6월 14일

전주만성초등학교장 박성배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하였습니다.